

동파 미리 예방해요

한파가 닥쳐오는 겨울이 되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될까봐 걱정이 많아진다.
재난에 취약한 겨울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기 위해선 예방이 최선이다.
지금, 우리 집 수도계량기를 점검해보자.



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
수도계량기 동파는 대부분 수도계량기함 내부로 찬 공기가 스며들거나 찬 공기와 수도관의 접촉이 길어질 경우 발생한다. 수돗물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얼기도 하고, 계량기 보호함이 노후되었거나 뚜껑이나 보온재가 파손되어 발생하기도 한다. 상수도 누수 및 계량기 동파사고 등 상수도 관련 민원 불편사항이 생기면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실(031-8075-4488)로 연락하면 된다.

수도시설 점검 대상

☑ 벽체에 설치된 계량기 보온 관리

- ① 보호함 뚜껑외부에 비닐커버를 접착테이프로 붙여 틈새를 통해 보호함 내부로 찬 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.
- ② 과거에 계량기가 동파된 적이 있으면, 보호함 뚜껑을 분해하여 열고, 스티로폼 보온재를 꺼낸 후 내부 틈새를 찾아 실리콘 등으로 막아야 한다.

☑ 지하에 설치된 계량기 보온 관리

- ① 계량기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부를 비닐로 감싸고, 뚜껑의 틈새를 통해 보호통 내부로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잘 단아야 한다.
- ② 계량기가 동파된 적이 있으면, 계량기 보호통 뚜껑으로 찬 공기가 접하지 않도록 넓은 덮개를 덮어야 한다.

동파발생 위험도별 4단계

일 최저기온
-5°C 이상

관심단계

동파 가능성이 있으니
잘 대비해야 하는 단계

일 최저기온
-5 ~ -10°C

주의단계

동파가 본격적으로
발생하는 단계

일 최저기온
-10 ~ -15°C

경계단계

동파가 빈번히 발생하는
위험한 단계

일 최저기온
-15°C 미만

심각단계

다량의 동파가
발생하는 단계

겨울철 동파 예방법



1. 채우기

수도계량기함의 보온재가 젖어 있거나 파손된 경우 헌 옷, 솜, 에어 캡 등 젖지 않은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. 젖은 보온재는 얼어붙어 동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.



2. 틀기

한파가 이를 이상 지속되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하면 대부분의 동파는 막을 수 있다. 흐른 물은 욕조 등에 받아서 재사용하면 동결,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.

일 최저기온 0°C~10°C : 45초 안에 1회용 종이컵에 다 채울 수 있는 정도
일 최저기온 -10°C~15°C : 33초 안에 1회용 종이컵에 다 채울 수 있는 정도



3. 녹이기

이미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주어야 한다. 화기(토치, 헤어드라이기 등) 사용 시 화재 발생 위험이 있고,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으니 천천히 녹이는 것이 중요하다.